

일본, 가정용 태양열발전 보급 촉진

고정가격 매수제 도입 ... 가정에서 쓰고 남은 태양열 전기 매입 의무화

일본이 2009년부터 독일 등 유럽에서 태양열 발전을 급속도로 보급하는 계기가 됐던 그린전력의 <고정가격 매수제도>를 도입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가정에서 태양열 발전으로 생산해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현재 가격의 2배인 kW당 50엔 (약 750원)에 전력기업이 매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현재 가정에서 발전한 태양열 전기를 전력회사가 일반 가정용 판매가격인 23-25엔 정도에 자율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이에 고정가격매수제도를 도입해 현재 판매가격의 2배로 향후 10년간 매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태양열 발전의 보급을 촉진해나갈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가정용 태양열 발전 설치비용은 약 250만엔으로 이중 50만엔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있다.

가정에서 생산한 전력의 50%를 자체 소비하고 나머지를 판매하면 15년간 약 200만엔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전력기업의 비용 증가분은 태양열 발전을 설치하지 않은 가정의 전기요금으로는 매월 수십엔에서 100엔 정도 추가로 부담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27>